

# 영광군 '햇빛소득' 소멸 위기 극복·에너지 자립 '우뚝'

마을단위 태양광 내년 10곳 추가 조성  
수익금 환원…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연간 50만원·취약계층 바우처 지원도

영광군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 표준 모델을 제시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에너

지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마을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상생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전국 확산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의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군은 이러한 국정 방향이 발표되자 전부터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와 이익 공유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4개소가 대표적이다. 총 10㎿ 규모로 조성된 이발전소들은 연간 약 25㎿h의 전력을 생산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평균 1천100만원(상환 완

료 후 순수익 약 800만원)의 수익은 전액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돼 공동 급식, 경로잔치 등 주민 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쓰인다.

군은 초기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마을의 부담을 줄었으며, 오는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단순히 발전소 건립에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군민 전체의 권리로 보는 '공유부(共有富) 기본소득'으로 확장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와 '자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태양광·풍력 등 지역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개발 이익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원으로 환원해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영광군은 전남도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전날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접수·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응복합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는 등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20

25년까지 2천11가구에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보급해 가구당 연간 30만~50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을 병행해 '에너지 복지'의 시각지대를 얹앨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형 햇빛소득마을은 군민이 곧 복지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생에너지의 성장이 군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최근 고품격 추모·치유 공간인 목포 메모리힐즈 추모공원이 문을 연 가운데 개관식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목포 메모리힐즈 추모공원 제공>

## 치유·문화 안식처…목포 '메모리힐즈 추모공원' 개관

첨단 항온·항습 설비 봉안당 조성  
자연 친화적…선진 장례문화 선도

고인에게는 안식을 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와 치유를 선사할 추모 공간이 목포에 새 둉지를 틀었다.

30일 목포 메모리힐즈 추모공원에 따르면 전날 공원 부지 내에서 이정오 이사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윤소하 전 국회의원, 박철홍 골드클래스 회장, 이경노 광신프로그레스 회장, 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경선·나광국 도의원 등 정·재계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공

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문을 연 메모리힐즈 추모공원은 기존 추모 시설의 어둡고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해 '그리움이 머무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공원 내부는 최첨단 항온·항습 설비를 갖춘

봉안당을 비롯해 페직한 실내 추모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유족들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자연 친화적인 조경 환경은 방문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유골 안치 기능을 넘어, 남겨진

이들이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슬픔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정오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메모리추모공원은 고인을 향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품격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책임 있는 추모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평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온 인물로 2024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을 수상했으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니소사이어티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경영과 사회공헌을 병행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메모리힐즈 추모공원은 이정오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현백 이사, 김록호 대표, 장영식 고문, 김희철 본부장 등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운영진을 구성해 체계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함평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새단장

노후 설비 교체·지붕 보강 등 개선

함평군이 노후화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에 나선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총사업비 16억5천만원을

투입,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이 운영 중인 자원화시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한다.

함평읍에 위치한 해당 시설은 21개 농가의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2014년 가동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잦은 고장과 퇴비사 지붕 부식, 악취 저감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퇴비 교반기 2식을 교체하고 2천200㎥ 규모의 퇴비사 지붕을 보수해

누수 문제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악취 및 대기 오염 방지 시설(1천300CMM)을 보완 설치한다.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퇴비 생산성 효율 향상과 악취 민원이 줄어들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개보수로 분뇨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페직한 축산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계절근로 전국 우수사례

농촌 인력난 해소…상생형 운영 모델  
병원비 지원·문화여가 프로그램 호평

무안지역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5년 농촌인력증개센터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서 전국 27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인력 증개를 넘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만족하는 '상생형 운영 모델'을 인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주관하는 공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인건비 안정이다. 농협은 고물가와 인력 수급 불안 속에서도 올해 계절근로자 일당을 10만원으로 유지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존중을 제공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 농촌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안정을 돋기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

이러한 정서 지원은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탈률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배정섭 조합장은 "공공형 계절근로는 단순히 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존중을 제공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 농촌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진도군, 자체 첫 '청년통계' 개발·공표

호남통계청 협업 6개 분야 분석

인구 25.4% 차지…기초자료 활용

진도군이 지역 청년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첫 자체 청년통계를 개발해 공표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작성한 '2025년 진도군 청년통계'를 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진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분야 77개 항목을 망라해 그동안 막연했던 청년들의 삶을 객관적 수치로 시각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도군 청년 인구는 7천24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2천33가구로 전체의 19.3%였으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1천428명(19.7%)으로 집계됐다.

지역 경제의 하리 역할을 하는 청년 사업체의 현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관내 전체 등록 사업체 7천773개 중 청년 대표가 운영하는 곳은 1천964개(25.3%)였다.

특히 청년 사업체 중 폐업하지 않고 운영을 유지하는 곳은 1천802개로, 91.8%라는 높은 유지율을 기록해 지역 상권의 범위로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군은 이번 통계를 시작으로 3년마다 정기적 인 조사를 실시,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통계는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첫걸음"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내년 농업인 교육생 모집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30일 '전날부터 2026년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 농업인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장기 과정인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단기 과정인 '품목별 전문교육'이다.

장기 과정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돋기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60시간 내외로 운영된다. 재배 기술부터 농업 세무·회계, 농기계 안전 등 필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단기 과정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16개 품목별로 30~50명을 모집해 현장 문제 해결

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전수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각 과정 시작 일주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링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 희망자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밴드에 접속해 관련 링크를 클릭하거나 정보무늬(QR)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61-470-6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나동호 기자



## 완도군, 道 농식품 유통 평가 '우수상' 쾌거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2025년도 농식품 유통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전남도는 농산물 유통과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 구축 및 품질 관리 ▲브랜드 쌀 육성 및 판매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부문에서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 장터' 입점 업체 수 및 직거래 장터 참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농산물 안전성 강화 부문에서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 농가 확대 목표 달성,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교육 농업인 참여율,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전년도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항목도 호평을 받았다.

이정우 농업축산과장